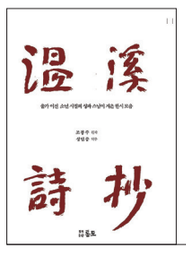
성파 대종사, 어린 시절 청명한 선시 묶다



온계시초(溫溪詩草)
성파 스님 원작
성범중 역주
도서출판 통도
2만원

16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 시절
65년 동안 빛바랜 공책 內 선시
성범중 명예교수 역주해 묶어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청소년 시기의 씨줄과 날줄이 짜는 '교차점'에는 '동적(動的)인 생동감'이 가득하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최근 발간한 〈온계시초(溫溪詩草)〉에는 동적인 생동감이 가득하다. 〈온계시초〉는 성파 대종사의 청소년 시기가 담겨 질박하면서 맑고 푸르다. 성파 대종사가 16세부터 18세까지 풀어낸 한시(漢詩) 묶음이 빛바랜 공책에 담겨 65년 동안 세상의 빛을 기다리다 모습을 드러냈다.

성파 대종사는 책을 내며 "모든 삶에는 저마다 가치가 들어있고 저마다의 색깔로 각자의 삶을 물 들여 전체적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꽃, 즉 인생을 피워낸다"고 했다. 출가 전 지은 작품으로 고졸(古拙)한 구절도 발견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건너 독자의 마음을 만나는 현묘한 거울이 되어 줄 것을 성파 스님은 기대했다.

〈온계시초〉는 대종사가 출가 전 고향 합천에서 서당 강성재(講性齋)를 다니며 쓴 한시를 엮은 것이다. 두루마리에 있던 한시를 1958년 2월 공책에 옮겨 적었고 공책을 간직했다. 책은 총 201수 가운데 펜으로 금을 그어 지운 작품 3수와 짓다가 미완으로 남긴 작품 15수를 제외하고 192수를 소개했다. 책은 공책에서 시를 시체별(詩體別)로 정리해 절구 61수(오언절구 4수, 칠언절구 57수), 율시 130수(오언율시 18수, 칠언율시 112수), 고시(古詩) 1수로 나눠 정리했다. 고시 1수는 강성재 서당의 훈장 정산 한 선생(靜山 韓 先生, 본명 미상)의 덕을 칭송한 내용이 담겼다. 책은 원본을 그대로 옮겼고 성범중 울산대 명예교수가 번역하고 주석을 추가했다. 마지막에는 역주자인 성범중 울산대 명예교수의 후기가 실려있으며 시집에서 드물게 색인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도서출판 통도'가 출판 등록 후 처음으로 펴낸 단행본이며 표지는 성파 대종사가 직접 쓴 친필이다.

제목 〈온계시초〉의 '온계(溫溪)'는 실재하는 지역명이 아니다. '따뜻한 시내'를 표현하는 글로 성파 스님의 소년 시절 마음을 담은 자호(自號)이다. 성파 스님은 소년 시절 합천 가야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냇물을 바라보며 서식하는 물고기와 수생식물들이 좀 더 안온하게 살기를 기대하며 따뜻한 환경, 따뜻한 계곡물을 기원했다. 차가운 계곡물을 시련의 삶으로 여기며 모든 생명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년의 마음이 담긴 제목이다. '시초(詩草)'는 한시들 가운데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한시에 두각을 드러낸 재동(才童)이었다. 경남 합천의 원로 유학자들이 참가하는 봄, 가을의 시회(詩會)에 참가해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고 시회에 참가해 적은 시들을 주최자들이 가져가 이번 한시 역주에 싣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책에는 스님이 서당교육 첫 과목으로 〈명심보감〉을 공부할 때 있었던 일화도 소개한다.

〈천명편(天命篇)〉의 구절 가운데 "소강절 선생이 이르기를 '하늘의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데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으며,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를 읽고 화두를 구하듯 사나흘 동안 '마음'을 참구했다. 대종사는 당시 "아심여명경(我心如明鏡)하여 조진불염진(照塵不染塵)"이라는 구절이 나왔고 "나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비치기는 하지만 티끌에 물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당시에는 한시를 지을지 모르는 상태여서 진솔한 마음으로 지은 글이다.

성파 대종사의 한문 공부는 서당 강성재에서 3년간 수학한 것이 전부였지만 〈명심보감〉, 〈소학〉, 〈논어〉, 〈맹자〉, 〈중용〉, 〈시전〉, 〈서전〉을 공부하며 탄탄한 한학의 입지를 마련했다. 이후 발전해 스님의 시조 사랑은 문학 후원으로 이어져 '성파시조문학상'이 40회를 맞았고 시조 부흥과 명맥을 이어 시조 문학 부흥의 기틀을 구축했다. 스님은 한학 경전 연구를 강조하며 후학 양성에 주력할 계획으로 통도사 경학원(經學院) 불사도 진행한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1939년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자호는 온계(溫溪)이다. 1960년 통도사로 출가했으며 법호는 중봉(中峰)이다. 1981년 통도사 주지, 2018년 통도사 방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15대 종정이다.

새로 나온 불교 易書들

쉽게 풀은 '금강경' 해설서



금강경의 핵심 교설을 말하다
김대우 번역 / 불교시대사 펴냄
1만5000원

〈금강경〉은 그 뜻을 모르고 독송하더라도 공덕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금강경〉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뜻을 모르고 읽는다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보면 조금씩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다.

〈금강경〉은 경전 중에도 많은 번역서가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느끼고 깨우친 〈금강경〉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해설했다. 전문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저가가 깨친 바를 풀어 놓았기에 생경하기도 공감도 가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책의 내용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금강경〉의 핵심적인 교설을 엄선하여 직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한자 문법의 특성상 의미를 함축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직역을 한다면 학문의 이해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일반 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가 쉽지 않아 책을 멀리할 것이기에 한자 문구의 의미를 풀어서 의역했다.

만해 스님 유일 선학 주해서



십현담 주해
한용운 지음 / 서준엽 번역
여의운하 펴냄 / 1민 2000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십현담 주해〉는 그가 1925년 여름 설악산 오세암에서 우연히 15세기의 김시습의 〈십현담 요해〉를 읽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 쓴 책이다. 이는 그가 서문에서 직접 밝혔다. 〈십현담 주해〉는 생애의 기로에서 산속 암자에 들어와 자신의 절박한 실존을 응시하던 40대 중반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인간 만해 스님이 절망 속에서 동안 상찰(?~%1) 선사의 〈십현담〉 10편 80구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참선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고 삶의 활로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발견하고 나서 완성한 저술이다.

그의 지속적인 참선과 깨달음의 산물이 바로 〈십현담 주해〉로 스님이 남긴 유일한 텍스트 주해서다. 만해 스님은 오세암에서 〈님의 침묵〉을 집필하기 2개월 전 같은 공간에서 〈십현담 주해〉를 탈고한다. 때문에 〈님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정독해야 할 텍스트가 바로 이 〈십현담 주해〉다.

'화엄경' 진수 맛보고 싶다면



청량국사화엄경소초 31~41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 역주/ 운주사 펴냄 / 2~3만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經)과 논(論)은 물론이고 유가(儒家)와 노장(老莊)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상세하고 치밀한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제껏 그 완역본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너무 방대한 분량에다 폭넓고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어서 누구도 선뜻 번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역주서는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원문 현토와 함께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과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한 상세한 각주를 달아 놓아서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한글본 '선가귀감' 저본 삼다



선가귀감
휴정 지음 / 정길수 편역
돌베게 펴냄 / 1만7000원

〈선가귀감〉은 서산대사 휴정이 불경(佛經)과 선승의 어록(語錄)에서 선불교의 핵심 어구를 뽑아 만든 책이다.

〈선가귀감〉은 현재 한문본(묘향산 간행본)과 한글본(송광사본)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하지만 한문본이 정본이라는 게 대다수의 입장이다. 그러나 역자 정길수 교수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한글본(송광사본)이 최초 출간된 한문본과 시기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휴정의 최초 저술 형태를 충실하게 간직하면서 의미 맥락을 파악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정 교수는 한글본을 저본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한문본에 추가된 주해와 송(頌)을 함께 제시해서 두 본의 장점을 아울렀다. 이 책은 한문본(묘향산 간행본)을 번역한 기존의 책들보다 최초의 한문본에 더 가깝고, 한글본과 한문본을 비교하여 빠트린 내용 없이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본의 정립이라 이를 만하다.

가장 정확한 '치문경훈' 易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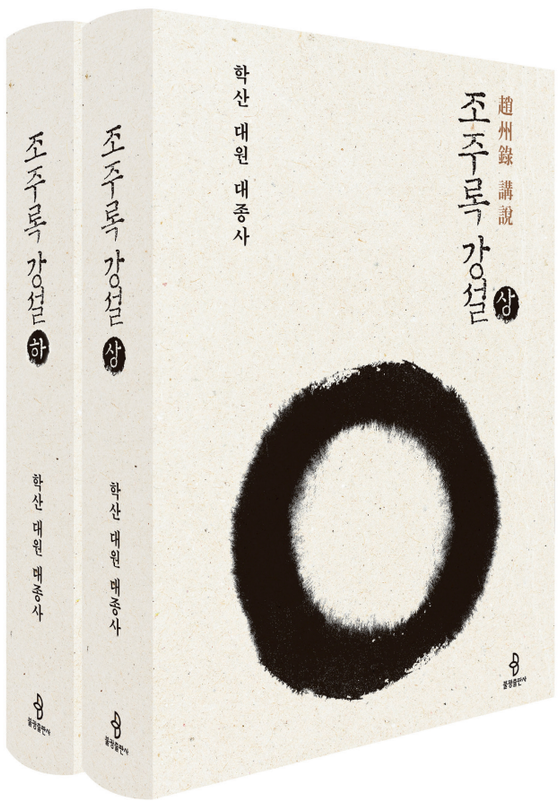
치문경훈
현진 스님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 5만원

불문(佛門)에 들어온 초심 수행자를 위한 옛 어른들의 경책과 교훈을 모은 책이 바로 〈치문경훈〉이다. 예비 스님인 사미·사미니는 경전과 어록보다도 먼저 〈치문경훈〉을 공부하면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난자(難字)가 가득한 원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한문으로 된 불서(佛書)를 읽고 공부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져 나간다.

이 책은 역경 불사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으로, 현진 스님이 193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강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진호 스님의 〈정선 현토 치문〉을 꼼꼼히 번역한 것이다. 누락이나 중략 없이, 한문으로 된 본문과 주석을 모두 담고 꼼꼼히 우리말로 옮겼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직역하되, 압축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풀어쓰거나 도움말을 첨가하는 등 〈치문경훈〉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와 읽고 싶어 하는 이 모두를 배려했다.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의 강설로 만나는

趙州錄 講說 조주록 강설 상 하



상696쪽
하816쪽
양장본
각 60,000원

간화선(看話禪)의 진수, 조주록(趙州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장 6년간의 강설을 하나로 엮은
조주선(趙州禪)의 진미(珍味)

오늘날 간화선을 대표하는 공안으로 자리한 조주 선사의 탁월한 선기를 보여주는 어록은 물론 그에 대한 『선종송고연주』, 『선문염송』, 『염송설화』의 내용을 싣고, 학산 대원 대종사의 착어와 송을 더해 고준한 선(禪)의 세계를 펼친 단 한 권의 책!

♦ 상권 ♦ 1칙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 223칙 적면사(覿面事)
♦ 하권 ♦ 224칙 진불(眞佛) ~ 525칙 연화(蓮花)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 大元 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의 길만을 걸어오신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다시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계시는 큰스님은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